

김석범(金石範)의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 론

—제주4·3의 기억을 중심으로—

임 성 택*

(e-mail : goldlst@naver.com)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4. 고백과 참회 |
| 2. 제주4·3, 50주년의 의미 | 5. 나가기 |
| 3. 폭력의 기억 | |

キーワード：金石範(Kim seok beom), 濟州4·3(Jeju 4·3), 暴力(Violence), 記憶(Memory), 告白(Confession), 懺悔(Penitence)

1. 들어가기

김석범(1925년~)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조국지향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재일조선인 1세대 작가로서 위상을 확립해왔다. 1957년 「까마귀의 죽음(鴉の死)」이라는 데뷔작을 시작으로 1997년의 『화산도(火山島)』, 2020년의 『바다 속에서(海の底から)』 까지 그의 집필활동의 핵심적인 소재는 제주4·3(이하 4·3이라 함)이었다. 문학을 통해 4·3을 세상에 알린 공로로 일본에서는 1984년에 ‘오사라기지로(大仏治郎)상’, 1998년에는 ‘마이니치(毎日)예술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에서도 2015년에 제1회 ‘제주4·3평화상’, 2017년에는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한일양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는 1999년

* 전북대학교 일본학과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에 「군상(群像)」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어 2000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작품에서는 4·3 50주년이 되던 해에 오사카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와 제주도에서 열린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에 관한 내용을 김상용(이하 ‘화자’라 함)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1925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김석범은 유소년 시절에 부모님의 고향 땅인 제주도를 몇 차례 왕래하다가 건강과 생활상의 이유로 194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일본에 정착하게 된다. 그 후 1988년 40주년이 되는 해에 작가는 42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다. 1991년에는 연재중인 『화산도』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신청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다. 1998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신청을 하였지만 처음엔 거부당한다. 그러나 대회 참가자 전원 항의에 의해 입국이 허가되고 대회 최종일에 가까스로 참석할 수 있었다. 이때의 어렵게 허가된 입국 과정과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에 대한 내용, 한국에서의 여정 등이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지금까지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 대한 선행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히라즈카 타케시¹⁾(平塚毅)는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는 4·3으로부터 약 50년간의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작가의 내부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하야시 고지²⁾(林浩治)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처참한 「백색테러」, 학살과 고문, 인간부정의 흔적을, 현재를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의 고뇌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김석범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야시 고지³⁾(林浩治)의 또 다른 논문에서는 4·3의 체험자인 한일상의 자살이 제주도에서 체험한 폭력에 의한 침묵이 계속되었던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가가 제주도와 재일이라고 하는 실존을 한층 가까이 한 점에 주목한다. 이처럼 그간의 선행연구는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투영된 재일이라는 존재의 의미로서의 작품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판으로 주제와 등장인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작품 속에 형성된 4·3의 기억의 현재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1) 平塚毅(2001) 「読み手に問われるもの一金石範のもうひとつの物語を導き手に一」 『世界を越えて』 1、立教大学比較文明学研究室、p.63.

2) 林浩治(2007) 「虚無と峙して書く一金石範文学論序説」 『社会文学』 第26号、p.90.

3) 林浩治(2016) 「金石範文学論・在日の実存を濟州島に結ぶ一イデーとしての濟州島一」 『神奈川大学評論』 第83号、p.182.

2. 제주4·3, 50주년의 의미

올해로 4·3의 역사는 72주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간의 4·3에 대한 논의는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결과 이제는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이념 속에서 4·3을 이해하려하고 역사적 진실에 토대를 둔 4·3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은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문학계에서도 이루어졌고 그간 많은 성과를 보여 왔다. 4·3문학은 국내와 일본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김석범의 업적은 단연 돋보인다. 김석범은 195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일본이라는 공간상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김석범은 「까마귀의 죽음」(1957년)을 통해 일본 문단에 4·3을 알렸으며 그 이후로도 『만덕유령기담』(1970년), 『화산도』(1976~1997년)를 통하여 평생 동안 4·3에 천착하였다. 「까마귀의 죽음」으로부터 『화산도』까지 40년간 그의 문학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4·3은 『화산도』라는 장편 대작을 완성함으로써 일단락을 맺게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 있었던 50주년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담과 4·3의 기억을 회상하며 이듬해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라는 작품으로 발표한다. 『화산도』를 비롯한 그 동안 4·3을 소재로 한 작품은 서사의 구조가 1948년 당시의 현실을 초점에 맞추었다면 50주년을 기념하여 쓴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는 50년이 흐른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의 서사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 발표한 『만월(滿月)』과 2006년에 발표한 『땅속의 태양(地底の太陽)』과 같은 작품도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와 같이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서사 구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작품은 4·3을 주제로 사건의 잔혹함과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는 김상용이라는 재일작가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서술 주체로써 화자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이며 4·3을 취재하며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고 그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화자는 일본에서 열리는 4·3 50주년 기념행사인 위령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거주

지인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한다. 위령제에서는 제주도에서 무형인간문화재의 무당이 초대되어 4·3으로 인하여 희생된 섬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식이 거행된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령제는 타국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제주 출신의 노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이자 오랜 기다림이었다.

「의자를 500개나 세워놨는데 벌써 꽉 찼어요. 오후 2시에 개장하는데 오전 12시전부터 할머니 다섯 명이 함께 왔어요. 2시부터이니까 시작은 아직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볼일 보고 오시면 어떻겠냐고 해도, 그런 것 잘 알고 있어. 앞으로 2시간만 기다리면 돼. 50년 기다린 거니까 2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아무도 없지만, 아무쪼록 회관 안으로 안내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맨 앞줄에서 다섯 명이 나란히 앉아 계속 기다렸습니다.」⁴⁾

“사람들은 국가가 기억을 통제하지 않아도 끔찍한 사건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⁵⁾고 말하는 권귀숙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인용문에 등장하는 제주 출신의 노인들은 학살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하여 고달픈 삶을 영위하면서 4·3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영원히 기억 속에 지워진 것은 아니다. 50년을 기다렸다는 간절함 속에는 일시적인 망각이었지만 진실에 대한 갈망과 죽은 자들에 대한 그리움은 그 누구보다도 컸을 것이다. 당시 젊은 나이였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자신들의 한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은 모였다. 위령제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아픔을 사무치게 서러워하는 광경이 나타난다.

천지간 만물의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인간입니다. 예, 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4·3위령제의 제단을 꾸미고……. 무참히 살해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 울먹이는 소리를 억누른 신방은 손에 든 수건으로 얼굴을 씻고 천천히 단상을 왕래하면서 주문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했다. (p.23.)

4) 金石範(2000) 『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講談社、p.13. 인용문의 번역은 필자의 줄역에 의한 것임. 이후로는 쪽수만을 명기한다.

5) 권귀숙(2006) 『기억의 정치 :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지성사, p.20.

오사카에서 거행된 4·3의 위령제의 의미는 “억울한 희생자들의 한과 고통을 치유하려는 노력”⁶⁾이라 할 수 있다.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인간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힌 4·3의 영혼들을 위한 치유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무당의 대사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

오사카에서 거행된 위령제가 끝나고 화자는 제주도에서 거행될 50주년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할 준비를 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참가에 망설이지만 사무국 측에서는 화자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기를 강하게 바라고 화자도 참석하기 위해 입국 신청의 허가를 받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대사관 측에서는 화자에게 입국을 허가해주는 대신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꿀 것과 앞으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건다. 자신의 입국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화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기억을 잃은 인간은 시체와 같다고 하지요. 지배자들은 사람들의 기억을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고, 죽음에 한없이 가까운 망각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우리들을 기억 없는 시체처럼 다루고,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4:3으로부터 반세기, 우리들은 지배자들이 이 땅속 깊이 묻어온 망각으로부터, 우리들의 기억을 소생시키고 일으켰습니다……」 (pp.150-151.)

화자는 역사를 은폐하고 피해자들의 기억을 말살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항해서 싸운 결과 오늘과 같은 날이 왔으며 4·3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50주년의 의미를 부여한다. 입국이 거부되고 행사는 시작되었지만 행사장에 있는 전원이 격분하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어 결국 행사 마지막 날에 고국 땅을 밟는다. 작품 속에 투영된 이때의 상황은 실제로 작가가 50주년 기념을 위해 제주도에서 거행된 행사에 참가한 것을 모티브로 해서 형상화하였다. 이때 김석범은 50주년 참가 소회에 대해서 “50년이 지나 학살당한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결된 망각의 어둠이 희미한 빛과 함께 기억으로서 이 세상에 부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본다.”⁷⁾고 밝히면서 역사적 실체에 다가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우여곡절 끝에 입국한 화자는 특별강연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힌다.

6) 이정석(2009) 『재일조선인 문학의 존재양상』 인터북스, pp.131-132.

7) 金石範(2001) 『新編 「在日の思想」』講談社, p.271.

나는 단상에 서서, 「특별강연」이 아닌, 「인사」를 했다. 내가 뭐라고 격식을 갖춘 「특별강연」을 하겠는가. 나는 모두에, 이번에 입국 허가는 대회 참가자 여러분의 힘과, 그리고 그 항의의 뜻을 받아 들여 새로운 결정을 한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정부의 배려에 의한 것이며, 그 정부 결정은 4·3사건 50주년 기념 대회를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특히, 자신이 이런 재일조선인의 「조선」 적에 대해서, 통일을 추구하고 「남」도 「북」도 지지하지 않는 분단의 틈에 있는 무국적 상태의 「조선」 적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미래의 문제에 대해 사건을 말하고, 조선 국적자의 한국 입국의 자유를 정부가 인정하고, 그리고 「남」·「북」을 초월한 공통의 준 통일국적 제정을 「남」·「북」정권이 협상하는 것이 어떨지……등을 말했다. (p.175.)

위의 인용문은 4·3 이후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안타까운 현실을 화자의 입국 소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목이다. 4·3의 희생 위에 탄생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의 역사는 분단이라는 상처를 가져왔다. 그간 한국정부에서는 언급조차도 할 수 없었던 4·3의 금기가 50년의 세월이 흘러 점차 풀리고 있으며 조국에서는 50주년을 맞이하여 획기적인 기념식이 열리는 등 정치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꺼낸다. “조선국적의 한국에의 길이 이윽고 통일로의 커다란 길로 통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⁸⁾한다는 작가의 언급과 대비시켜 보았을 때 남과 북의 화해무드를 통한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마련하기를 희망하는 작가의 메시지를 화자를 통해서 표출한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분단이라는 민족의 상흔을 치유하기 방안으로 통일을 주장하는 화자의 특별강연의 발언은 50주년의 의의와 미래에 4·3의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3. 폭력의 기억

4·3은 많은 민중의 희생으로 인하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8) 전개서, 金石範(2001) p.118.

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양점심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은 정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⁹⁾ 이처럼 많은 민중들의 희생을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 속에서도 학살의 모습은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이정석은 “문학이 시대의 부조리를 증언하고 인간의 실존적 고뇌를 담아내며 보다 나은 세상을 희구하는 양식”¹⁰⁾이라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의의를 정의하였다. 그간의 4·3문학은 위와 같은 문학적 형상화의 의의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역사적 진실 규명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김석범은 초기소설에서 4·3이 발발하고 1948년 10월 하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시행된 군경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제주민중의 피해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한다. 「간수 박서방」에서는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의한 무장봉기의 철저한 탄압 장면이 주로 그려져 있고 「까마귀의 죽음」과 「관덕정(觀德亭)」(1961년)에서는 1949년 초의 막바지 토벌작전에서 군경의 제주도민에 대한 집단 학살 장면이 주로 그려져 있다. 한편 『화산도』에서는 초기소설의 단편적인 묘사를 뛰어 넘어 역사적 사료를 배경으로 무장봉기 발발부터 진압 시까지의 사건을 시대 순으로 일관성 있게 묘사하였으며 군인, 경찰의 피해 사례도 묘사하여 중립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고자 한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는 오사카의 위령제에 모인 노인들의 기억으로부터 학살의 기억이 회상된다. 제주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집단 학살의 유명한 이야기를 오사카에서 개최된 위령제에 온 노파의 입을 통해서 당시의 민중들의 처참한 아픔이 이야기 된다.

특히 말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맨 앞 열의 통로 측에서, 오십 전후의 여자에게 마이크를 내밀고 있는 것은 신문 아니면 텔레비의 취재이다. ……아니야, 우리는 오사카 출생이에요. 그 당시는 여기에서 소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라는 것으로 젊은이들이 없어질 정도로 모두 살해당한거야. 우리 하로버지는 말이야, 하로버지라는 것은 할아버지이지만, 할머니와 함께 살해당해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제주도의 동쪽의 김녕이라는 마을에서. 김녕은 전부가 몰살당했고, 살아남은 사

9) 양점심(2008) 『제주 4·3항쟁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p.123.

10) 전개서, 이정석(2009) p.130.

람들만이 마을을 버리고, 수십 명 씩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달아났어. 김녕만이 아니야. 가족이 전멸되도록 살해당한 사람들도 많아. 근처 부촌이라는 마을은, 전체가 불에 타고, 하루 만에 오백 명이 총살당했어. 제주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p.16.)

위령제에 참여한 노파들은 4·3 당시 제주도에서 벌어진 만행의 기억을 상기한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밀항선을 타고 어쩔 수 없이 제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통해하며 50년 전에 잔인하게 죽어갔던 제주 민중들의 넋을 위로한다. 그리고 50년이 흘러 이렇게 위령제라도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며 시대변화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한다. 권귀숙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은 현재의 필요성 때문이고, 대량학살의 기억을 보존하는 것은 미래에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동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¹¹⁾라며 4·3의 역사가 정립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한다. 작가 또한 이러한 이유로 당시 사건의 당사자였던 제주도민의 입을 빌려 50년 전의 사건의 기억을 재 점화한다. 위령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화자는 자신을 4·3으로 이끈 계기가 된 40년 전의 대마도의 일을 회상한다.

대마도에는 수한에게 부탁받아 간 것이다. 제주도 게릴라가 일 년여 만에 거의 괴멸하여, 도민의 피가 섬을 덮은 대학살이 거의 끝난 무렵에, 수한은 일본으로 밀항하여 도망 왔다. 먼 친척에 해당하기에, 나는 그를 수한 숙부라 불렀지만, 밀항해 온 그가 우연히 나와 근처 이웃집에서 살게 되어서, 친해지게 됐다. 수한이 나에게 「4·3」에 대한 하나의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p.57.)

화자는 고향 섬의 참극에 대해서 실제 체험자로부터 들은 것은 처음이며 그 충격의 골이 너무나 깊어 이후의 삶의 방향이 바뀔 정도였다. 김석범 또한 1950년 봄에 제주도로부터 밀항자를 맞이하러 대마도에 갔는데 거기에서 유방을 절단당한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진다.¹²⁾ 그리고 결국 위 인용문의 화자처럼 4·3의 길로 빠져든다. 김석범은 대마도에서 있었던 일

11) 전계서, 권귀숙(2006) p.27.

12) 金石範(2010)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右文書院、p.92.

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제주도사건을 쓰게 된 동기 중 가장 큰 것은, 그 사선을 넘나들어 온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일 것이다. 일본의 바로 근처인 섬에서 일어난 이 비극이 거의 일본에 보도되지 않았으니, 내가 사건을 안 미디어는 활자가 아닌, 실로 살아 있는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의해 알게 된 학살과 잔학의 사실은, 그곳을 고향으로 여기는 내 안에 큰 분노를 만들어낸 것이었다.”¹³⁾고 할 만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한다.

수한 삼촌은 대학살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였지만 다행히 일본으로 밀항하여 삶을 유지한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병원생활을 하게 되어 움직일 수 없어 화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대마도에서 데려올 것을 부탁한다. 그 후 대마도로 가서 수한 삼촌의 아내와 젊은 여자를 만나 고문의 참상을 듣는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둠 속에서,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이상으로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가슴이 없는 거야. 유방이 두 개 모두. 고문으로 잘려버린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옆에 본인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나는 대마도까지 온 것인가. 전율이,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를 감은 것 같은 전율이 몸을 반복하여 흔들고, 심장의 박동이 순간 멈춘 채, 나는 완전히 무명의 바닥 깊이 빠져 있었다. (p.64.)

고문으로 유방이 잘린 송점례의 이야기는 충격을 넘어 화자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뒤 흔든다. 김석범은 이때의 상황을 “제주도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분노를 만들고, 그리고 제주도를 테마로 하여 몇 가지 작품을 쓸 동기를 준 것은 그들 밀항자였다고 할 수 있다.”¹⁴⁾고 할 만큼 충격 자체였다. 그리고 송점례가 들려준 제주경찰의 유치장에서 처형된 젊은 동료의 이야기는 화자에게 충격을 더한다. 사형에 처한 여성은 자신을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 하얀 천에 자신의 신상을 기록하고 허벅지에 묶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자신의 희생을 담담하게 감당하면서 훗날 역사에 기록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숭고하기까지 하다. 결국 수한 삼촌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게

13) 金石範(1975) 『口あるものは語れ』 筑摩書房、pp.158-159.

14) 金石範(1972)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p.252.

되고 이후 수한 삼촌의 부인과 유방이 잘린 여자는 니가타에서 배를 타고 북으로 가 삶을 이어 간다. 고향땅을 등지고 일본으로 다시 북으로 가는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 시대적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당시 제주민중의 애환을 표출하였다. 대마도 밤의 어둠에서 들었던 유방이 없는 여자 이야기와 경찰 유치장에서 이유도 없이 죽임 당한 스물을 막 벗어난 어린 여자 죄수의 이야기는 4·3의 만행을 기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갈구하는 작가의 의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고백과 참회

앞장에서는 4·3의 현장에서 아무런 죄 없이 쓰러져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이와 대비되는 가해자의 모습을 살펴 보도록 하자. 김석범의 초기소설에는 4·3의 현장에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가해자들의 여러 유형이 등장한다. 초기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간수 박서방」, 「까마귀의 죽음」, 「관덕정」에서는 서북청년회, 경찰, 군인들의 민중들에 대한 폭력과 학살의 장면이 간단한 스케치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화산도』에서는 서북청년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였고 경찰, 군인들의 토벌작전 등이 역사적 사건과 유사하게 그려지는 등 외연의 확장을 가져왔다. 또한 폭력과 학살의 장면 이외에도 학살의 현장에서 괴로워하는 양심적인 군인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가해자로서 디아스포라의 운명이 된 한일상이라는 인물에 주목해야 한다. 한일상은 4·3 당시에 반민족행위를 하여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오사카에서 거행된 50주년 위령제에 남몰래 참석한다. 그는 4·3 당시에 중학교 교원이었지만 집단 학살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더 이상 제주도에 살 수 없어 일본으로 밀항한 인물이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조선인 국적을 버리고 일본인으로 귀화한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여 일본인으로서 새 출발을 기약했지만 결국 가족들에게 조선인이라는 것이 알려져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자식들로부터도 외면당

하게 되며 결국 노년에는 혼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한일상은 위령제가 끝날 무렵에 우연히 화자의 눈에 띄어 봉쇄해두었던 기억을 하나 둘 씩 풀어놓는다.

한 아무개는 과거에, 죽은 사람이고, 세상에 없어야만 했다. 살아있는 것은 토야마 아무개. 제일조선인 사회와는 관계없는 그가, 오사카에서의 4·3사건 50주년의 위령제에 나타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과거를 죽이고, 철저하게 일본인이 된 남자이며, 특히 동향의 제주도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 이미 다른 세상사람. 신문의 사회면에 크게 4·3사건 50주년의 행사 등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었다고 해도, 어쩌서 그가 굶판 현장에 발을 옮긴 것일까. (pp.45-46.)

한일상의 과거의 행적을 알고 있었던 화자는 그의 일본인으로서의 철저한 변신은 당연한 일이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러나 위령제에 갑자기 나타난 한일상의 모습을 회상하며 화자는 그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화자는 위령제에서 40년 전에 삼촌 수한의 병문안 때 딱 한번 만난 한일상을 바로 알아보고 뒤따라가지만 그는 택시를 타고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일상으로부터 한통의 편지가 오는데 그도 당시 위령제때 화자를 알아차렸다고 고백을 한다. 편지의 내용은 4·3 당시에 가해자 측에 서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위령제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타인의 이해를 구하거나 판단·용서·동정을 얻기 위해 행해지기 때문이다.”¹⁵⁾라는 윤정화의 언급처럼 한일상의 고백도 진솔한 고백을 바탕으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자 하는 의식적인 행위이다.

남의 시체 위에. 살아 있는 것이 죄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의미도 아무 것도. 소인은 그저 살기 위해서 일본에 와서, 일본인이 된, 비겁한 인간입니다, 소인은. 지금, 그 일본인도 붕괴되고……. 소인은, 이는 감상적일지도 모르겠지만, 고독한 인간입니다. 이제 와서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오십년의 두꺼운 얼음 밑에서 퍼내 마실 자격이 있으면, 독극물이라도 마시고 뼈를 씻을 수 있다면, 아니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pp.80-81.)

15) 윤정화(2012) 『제일한인 작가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혜안, p.179.

한일상은 민족을 배반했던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왔고 일본인이 된 비겁한 인간이라 자책한다. 또한 과거의 자신의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일본인으로 위장하였지만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며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이러한 한일상의 모습은 『화산도』에서 유달현이라는 인물을 연상하게 한다. 중학교 교원으로서 남로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유달현은 시류에 편승하여 변절행위를 일삼는 인물이다. 경찰과 내통하여 당원 명부를 넘겨주어 조직원들이 체포되게 만들고 본인은 일본으로 밀항하여 삶을 연명하고자 하였으나 밀항하는 배에서 주인공 이방근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다. 중학교 교원이라는 신분과 민족의 반역자로서의 역할 설정은 『화산도』의 유달현을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의 한일상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리고 편지의 끝에 현재는 가족 없이 독신 생활을 하고 있고 50주년 기념 위령제에 참석하게 되어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좀 해방된 듯 한 느낌이라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도쿄로 가서 화자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며 편지를 마무리한다.

그 사이에 화자는 총담관 결석이라는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아픈 가운데서도 만남을 위해 몇 차례 통화를 하여 도쿄에서 만나기로 하고 화자가 입원했던 병원 근처 찻집에서 한일상을 만난다. 그는 4·3의 위령제를 기점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한동안 힘들었지만 화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은 느낌이며 이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끝난다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될 것 같아 만날 결심을 하였다고 말한다.

토야마의 목소리가 떨리며, 안경 너머로는 눈물이 비추었다. 「50년이나 지나서, 그러한 일이 오사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간입니다. 인간, 이라고 해두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본인인 채로, 아니, 붕괴한, 깨져버린 일본인이죠. 일본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입니다. 옛 망국의 국민이었던 결과. 이것은 재일의 운명의 한 종류라 할 수 있겠죠..」 (p.118.)

한일상은 80년을 살면서 약 50년은 일본인으로써 살아왔고 귀화하며 언은 일본인이라는 가면 속에서 유령과 같은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리고

늦었고 불가능하지만 원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내면의 희망을 표출한다. 한일상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짜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자에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늦게나마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뿐이다. 두 사람이 만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화자는 우연히 신문 기사를 통해 한일상의 자살 소식을 접한다.

나는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은 불길한 충격에 휩싸였다. 전광과 같은 예감은 맞았다. 석간사회면, 일단에 있는 기사. 「80세노인 투신자살 오사카·네야가와 29일 오전 5시 30분경,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K초, R맨션 11층 옥상에서 투신자살. 신원은 같은 맨션 주민 토야마 우메키치씨 (80). ……유서 같은 것은 없었다……」 역시 토야마였다. 다시 확인해봤지만, 토야마 유키치, 80세, 게다가 네야가와시의 맨션이니까, 한일상이었다. (p.250.)

한일상의 죽음의 이유는 4·3 당시 본인의 손으로 처단한 죽은 자들의 영혼이 꿈에서 나타나 그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일상의 자살은 『화산도』의 이방근의 자살을 연상케 한다. 물론 이방근은 민족 반역자 유달현을 처단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자살을 선택했지만 한일상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 위한 자살이라는 면에서 차이는 있다. 그러나 한일상의 자살을 가해자의 진정한 뉘우침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방근의 죽음과 견줄 수 있는 결말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일상이라는 인물설정은 피해자 중심의 서사 구조를 탈피하여 가해자의 내면적인 고뇌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작품과 차별화된 요소라 할 수 있다.

5. 나가기

본고에서는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의 작품 속에 투영된 4·3의 50주년의 의미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의 기억 속의 4·3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일본 오사카에서 거행된 50주년 기념 위령제는 학살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하여 평생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제주 민중들의 오랜 한을 풀어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의 지배 권력의 학살과 제주민중의 아픈 기억은 뚜렷하며 그간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젠 공식적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넋을 위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50주년의 의미를 찾는다.

한편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는 기존의 작품과 다르게 한일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해자의 내면의 고뇌를 묘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일상은 4·3당시에 행한 반민족적인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제주도에 살 수 없어 살아남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하고 귀화하여 과거의 행적을 깨끗이 지우고자 했으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결국엔 자살이라는 결말을 선택한다. 기존의 작품들이 주로 피해자의 아픔을 묘사하는 서사 구조를 보였다면 본 작품에서는 고백하고 참회하는 가해자의 양심적 고뇌를 그렸다는 점에서 작품의 의의는 돋보인다.

【참고문헌】

- 권귀숙(2006) 『기억의 정치 :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지성사, p.20, 27.
 양점심(2008) 『제주 4·3항쟁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p.123.
 윤정화(2012) 『재일한인 작가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해안, p.179.
 이정석(2009) 『재일조선인 문학의 존재양상』 인터북스, p.130, pp.131-132.
 金石範(1972) 『ことばの呪縛』 筑摩書房, p.252.
 _____(1975) 『口あるものは語れ』 筑摩書房, pp.158-159.
 _____(2000) 『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 講談社
 _____(2001) 『新編 「在日の思想」』 講談社, p.118, 271.
 _____(2010) 『金石範《火山島》小説世界を語る』 右文書院, p.92.
 林浩治(2007) 「虚無と峙して書く -金石範文学論序説-」 『社会文学』 第26号, p.90.
 _____(2016) 「金石範文学論・在日の実存を济州島に結ぶ一イデーとしての济州島一」 『神奈川大学評論』 第83号, 神奈川大学広報委員会, p.182.
 平塚毅(2001) 「読み手に問われるもの-金石範のもうひとつの物語を導き手に-」 『世界を越えて』 1, 立教大学比較文明学研究室, p.63.

논문 투고 일자 : 2020. 09.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20. 10. 28.

＜要旨＞

金石範의 『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論

- 濟州4·3の記憶を中心に -

林晟沢

本稿では『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の作品に現れた4・3における50周年の意味およびディアスポラの生を生きる異邦人の記憶の中にある4・3の姿を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

50年という時が流れたが、当時の支配権力による虐殺と濟州民衆の痛い記憶は明確で、今まで話せなかった犠牲者たちの恨みを公式的に慰めることのできる雰囲気が醸成されたという点に意義がある。

一方で『海の底から、地の底から』は以前の作品と違い、韓一詳という人物を通じて加害者の内面の苦悩を描写したという点が特徴である。つまり、以前の作品は主に被害者の苦悩をありのままに描写する叙事的構造であったのに対して、本作品は悔いている加害者の苦悩を描いたということに意義がある。

A study of Kim Seok-beom's "under the sea, under the ground"

-Focusing on the memories of Jeju 4·3-

Lim, Sung-Taek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4·3 projected in the works of "under the sea, under the ground" and the appearance of 4·3 in the memories of people living abroad.

Although 50 years have passed, the memory of the massacre perpetuated by the ruling power and the suffering of the Jeju people is apparent, and the 50th anniversary means that an atmosphere has been created that can formally comfort the souls of the victims in an inexplicable situation.

On the other hand, "under the sea, under the ground" has significance in that it depicts the inner agony of the perpetrator through a character named Han Il-sang, unlike previous works. While the existing works mainly show a narrative structure that describes the victim's pain, this work stands out in that it depicts the agony of a repenting perpetrator.